

이슈

2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093호

내가 왜 떴게?

너무 투명해서 뒤가 비치는 줄



●박형식, 투명 외모 : 배우 박형식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자동차 안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박형식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머리 위로 물감이 번지듯 들어온 햇살이 최고의 자연조명 효과를 내고 있다. 사진을 본 팬들의 반응은 “맑고 깨끗한 잘 생김”, “민지 못할 만큼 큰 동공”, “스물아홉 살 실화나” 등 박형식의 훈훈한 외모에 대한 찬사 일색이다. 과연 인기 힘들 정도로 맑고 투명한 외모, 너무 맑고 투명해서 뒤에 앉은 사람 얼굴 보이는 줄.



정연

‘씩둑’ 잘라도 예쁘네

●트와이스 정연, 단발변신 : 자를까 말까, 앞머리 커트 하나만 놓고도 한 달 씩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단발은 견디기 힘든 유혹이다. 오죽하면 ‘단발병’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을까. 걸그룹 트와이스의 정연이 인스타그램에 ‘씩둑’이라는 글과 함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정연은 앞서 트와이스 월드투어 ‘트와이스라이츠’에서 머리를 자르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 완전한 쇼트단발은 아니고 어깨 정도까지 머리카락이 내려오는 중단발이지만 그래도 나름 ‘씩둑’이다. 큰 결심하셨군요. 그런데 뭘 해도 예쁜 사람이 이런 고민씩이나.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매느리가 암바 가는 그날까지!

할머니가 하이킥 차는 그날까지!

적투기 예능의 끝판왕

이종TV

이종TV 유튜브채널 개국

칸 황금종려상 ‘기생충’ 30일 개봉 앞두고 국내 첫 시사회



한국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의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의 주역들이 국내 관객과 만남을 앞두고 28일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시사회에 참석했다. 시사회 직후 포토타임에서 봉준호 감독,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조여정, 이선균, 송강호(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기생이 될지 상생이 될지는 인간 존중에 달려”

-봉준호 감독

가난한 이들의 몸짓은 절박함
최우식의 노래도 절망의 역설
기생충은 결국 인간의 이야기

“칸은 과거가 됐다.”
26일 막을 내린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이 말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영예를 안은 부담감일까 아니면 30일 국내 개봉과 함께 또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려는 의지일까.
28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시사회를 통해 ‘기생충’을 국내 첫 공개한 봉 감독은 “이제 한국 관객을 만나게 됐다.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소감이 궁금하다”고 밝혔

다. 칸 황금종려상 수상작에 쏠린 관심과 시선이 흥행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설렘의 기대감처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기생충’의 예매율은 51%(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넘어서며 ‘기생충’ 제작진의 기대치를 높였다. 또 봉 감독과 ‘흥행파워’를 자랑해 온 송강호의 호흡, 황금종려상 수상작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시사회에는 5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이날 ‘기생충’ 관계자는 “3개관을 취재진 시사를 위해 대관했다”면서 “극장가 특수를 노리는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시사회와 엇비슷한 규모이다”고 말했다.
‘기생충’은 모두 직업을 갖지 못한 가난한 집안의 식구들과 IT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부를 쌓은 젊은 CEO 집안의 가

족이 얹히고설키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최우식)이 CEO(이선균)의 딸을 과외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드라마와 코미디, 공포와 스릴러 등 장르를 넘나들며 기발한 상상력을 펼쳐낸다.
영화는 이미 알려진 대로 이를 통해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풍자하며 고발한다. 가난한 이들이 내뿜는 대사와 드러내 보이는 몸짓은 때로 웃음을 자아내는데, 이는 더욱 더 심화하는 경제적 양극화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함의 안타까움을 더한다. 엔드크레딧과 함께 흐르는, 최우식이 부르는 주제가 ‘소주 한 잔’(봉준호 작사)은 계급의 사다리를 통해 위로 절대 오를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한 젊은 세대의 좌절과 절망의 역설이기도 하다.

봉 감독의 지휘 아래 주연 송강호를 비롯해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등 연기자들이 펼쳐낸 연기는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됐다. 실제로 봉 감독은 이날 시사회 직후 간담회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모습)는 풍부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배우들에게 투명돼 보여진다”면서 배우들에 대한 찬사를 잊지 않았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인터뷰를 통해 “인간이 가진 자존감 붕괴와 존중의 이야기”라고 영화를 소개한 송강호의 말을 이어받듯, 봉준호 감독은 이날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엄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기생이 될 수도, 공생과 상생이 될 수도 있다”며 결국 영화 ‘기생충’은 인간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1 동석한 가수는? 2 정 마담 누구? 3 황하나 왜 거기에?

양현석 성 접대 의혹 후폭풍

승리·정 마담 함께 찍은 사진 돌아 인터넷 커뮤니티 ‘YG 보이콧 성명’ 대학가선 “YG가수 축제 섭외 거부”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49)의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 YG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MBC 탐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은 양현석이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금융인과 태국인 재력이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성 접대를 했다는 목격자



양현석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27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양현석과 함께 동석한 소속 유명 가수가 누구인지, 동남아시아 재력이 2명에게 성

접대를 하기 위해 유혹업소 여성 10명을 주선한 일명 ‘정 마담’이라는 인물에 관해 관심이 뜨겁다. ‘정 마담’이라는 인물은 양현석과 소속 연예인들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 있던 15명의 일반 여성 가운데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인 황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와 SNS에서는 ‘정 마담’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박병출신 승리가 함께 찍은 과거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또 YG엔터테인먼트와 버닝썬의 연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자 대중의 실망감과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비난의 목

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YG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떨어지면서 보이콧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엠넷 갤러리’ 측은 이날 ‘YG 보이콧 성명문’을 통해 “YG에서 제작하는 모든 음악을 수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YG는 버닝썬 사태가 촉발된 이후 많은 사건에 이틀이 따라왔다”며 “연예기획사가 이런 부적절한 일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팬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잃게 하는 근원”이라고 썼다. 이어 “YG가 케이팝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어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서는 대학가 중심으로 “YG 소속 가수들의 축제 섭외를 거부하자”며 “우리들의 등록금이 범프 집단으로 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mjoy@donga.com

SNS로 숨은 인물 추적하는 ‘누리꾼 수사대’

연예인 사건의 관련 인물들 파헤쳐
정마담 메시지·개인 정보도 공개
수집한 자료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최근 연예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일명 ‘누리꾼 수사대’이다. 마치 온라인상의 경찰처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인물들과 SNS를 통해 접촉하며

‘수사’를 펼쳐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로 허위사실 유포와 도를 넘는 ‘신상 털기’, 악플 생산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잡 잡하다 최근 연예인들과 관련해 대형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누리꾼 수사대는 과거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한 인물루언서(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대중에게 큰 영향력 미치는 사람)의 비리

등을 폭로해 화제를 모았던 ‘강남패치’에서 이름을 딴 ‘OOO 패치’라는 비공개 계정을 통해 활동 중이다.

연예인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은 관련 인물들을 집중 파헤쳐 정보를 얻거나, 해당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제3자가 먼저 나서서 음성파일이나 사진자료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제작진 측에 유혹업소 여성을 알선한 ‘정 마담’이라는 인물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이 인물과 연관된 주변인의 ‘제보’를 받으며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인물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했다.

앞서 승리의 ‘버닝썬 사태’와 연관된 주변 인물들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사실도 누리꾼 수사대가 여러 경로로 알게 된 제보자들의 자료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은 자료에 대해 누리꾼 수사대는 특정 방송사나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하며, 방송사 측이 먼저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